

■ [주]체리피드 신상민 대표이사

지나친 입식은 서로 자제하는 지혜 필요



“저의 경영이념은 행복이며 만족입니다. 나 외에는 모두가 고객인 것입니다. ‘전후좌우가 전부 고객이다’라는 말처럼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만족시키는 조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양가가 만족하고 가축이 먹어서 행복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우리 회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말은 지난 2010년 9월 체리부로 계열사인 (주)체리피드·(주)한길바이오 대표이사를 맡은 신상민 사장의 취임 일성이며, 이제까지 CEO로서 지켜온 그만의 경영철학이다.

부산시 부산진구가 고향인 (주)체리피드 신상민 사장(53세)은 1986년 중앙대학교 식품가공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98년 (주)체리부호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신 사장은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체리부로의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전문업체 (주)금계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며, 일찌감치 경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다음은 신상민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사장님의 신년 계획과 소망은?

A 2013년은 한길바이오와 체리피드가 합병하여 하나의 기업으로 출범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을 시작으로 두지붕 한가족에서 한지붕 한가족이 됩니다. 이미 동질성이 확보된 터라 합병으로 인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신년의 소망은 첫째가 우리 모든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행복한 한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료를 '만들면서 만족하고', 우리의 사료를 공급받아 먹이는 사양가들이 우리의 사료를 '먹이면서 만족'했으면 합니다. 결국 '닭이 먹어서 행복한 사료'를 만들고자 하는 희망이 있지요.

그래서 교육훈련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제품을 up grade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노력으로 좋은 사료를 만들자'라는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저의 업적이라기 보다는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이라 조직 결속력이나 기계의 효율성 등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으나, 조직력을 갖추고 기계의 효율을 올린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펠렛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낮은 경도에 높은 PDI를 나타내는 등 Physical Quality의 획기적인 향상도 있습니다. 또한 사료 생산성이 20% 이상 개선되었고 사료효율 역시 육계사료의 경우 1.5보



▲ 2012년도 멕시코 양계 관계자 본사 공장방문 모습

정 FCR기준으로 연평균 1.55대에 연평균 생산지수 300달성에 기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Q 지난해의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관련한 견해와 향후 전망은?

A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많은 고민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국제 곡물가격 문제입니다.

어떻게 흐름을 역류할 수 있겠습니까? 견해도 전망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터이고 가격이 내리더라도 제한적이며 상승폭 만큼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대응방안이 있겠습니까만, 적절한 구매를 통한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사료효율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에 몰입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R&D투자에 많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combine shipping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있



▲ 2012년도 한마음 전진대회.

는 추세이고 컨테이너 단위의 구매가 가능해지는 추세라 적절한 원료의 선택으로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 가축질병과 관련한 향후 예방책은?

A 가축질병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장내 진입시의 차량 및 대인 소독과 방역은 일반화 된 것처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종계사료의 경우는 이미 항살모넬라제를 사용하고 있고 벌크차의 벌크통 내부까지도 살균소독하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곰팡이제는 상시 사용하여 사료 안전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장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여 각각의 전용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차량이 농장에 진입되는 자체가 금지시키는 등의 철저한 교차오염 방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계의 경우는 펠렛팅의 온도 조건 등을 철저히 체크하여 살모넬라를 제어하고 항곰팡이제를 상용하여 안전성을 더하면서도 농장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자 차량의

바퀴 등 외부 소독만이 아니라 내부의 벌크통 까지 살균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반 기사는 휴대용 개인소독 용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손 소독 신발소독을 하면서 농장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Q 향후 통합된 회사를 이끌어 나아갈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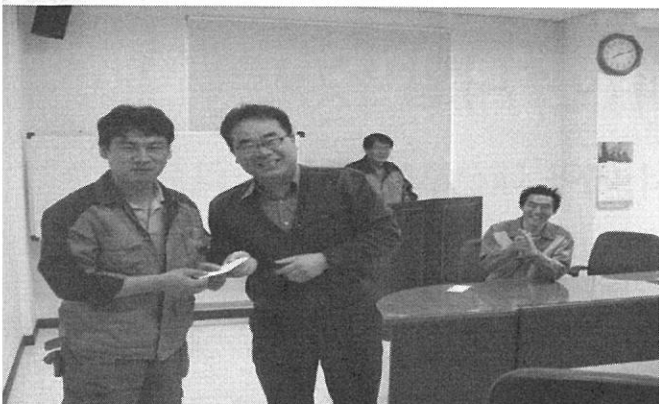
A 우리들의 자녀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원이 입사를 추천하는 회사, 특히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다니도록 권하고 싶은 회사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복지나 환경 그 이상의 것이어야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매력과 포근함이 담긴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Q 최근의 관심 사항은?

A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품질의 향상으로 사양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닭이, 사양가가, 사육주체 등 사육관련 구성팀 모두가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해지는가를 보는 것이 관심이며, 우리가 사



▲ 2012년도 월례회의 모습.



▲ 우수 직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료를 만들며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관심사항입니다.

Q 사장님의 좌우명 및 생활신조?

A 좌우명은 곧 저희 집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 나의 모습이다”입니다. 오늘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상황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밤에 출출해서 라면을 먹었다면, 라면 먹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다음날 아침 얼굴이나 몸이 붓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선택이 바로 미래의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지금 나의 선택이 어떠한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생활신조는 ‘뿌리 뽑자입니다.’ 뭉그적거리며 하는 등 마는등 흉내 내지 말고 매사를 확실히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Q 사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

A 맹탕 같았고 때론 급한 성질만 있었는데 많이 변해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사

고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실행을 전제로 사고하는 편으로 변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첫 강의에서 ‘남자가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되 결정하면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말이 늘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은 추진하여 결과(실패를 포함)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곧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을 결정한 것이다 라는 말처럼 매순간 결정하고 추진하여 액티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Q 기타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A 지나친 것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나친 입식 등으로 축산경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즈음에 지나친 입식을 서로 자제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

〈글·사진 권영길 차장〉



▲ 2011년도 체리피드와 한갈바이오의 단합대회.